

넓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새해에도 '건설산업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넓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 건설산업의 인식 범위를 '시공'이 아니라 설계/엔지니어링과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는 전체 건설산업의 생태계로 확산해야 한다. 특히, 건설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금액 비중이 작은 사업 초기 단계의 설계/엔지니어링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시설물의 총생애주기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가격(price)이 아니라 가치(value)를 중시해야 한다. 사업 초기 단계의 낙찰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품질·안전·공기 등 비금전적인 건설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신시장 개척이나 신사업 발굴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칸막이식 건설업역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건설업역간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업체가 시공을 할 수도 있고, 시공업체가 설계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지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으려면 칸막이의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칸막이식 건설업역 구조에서 파생되는 대

립과 갈등은 통합과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같은 통합적 발주 방식의 시범 활용도 필요하고, 통합과 협력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최대 발주자인 정부는 조달제도의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넓은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달 프로세스는 넓은 건설 패러다임을 깨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임시방편에 불과한 단기 대책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건설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도 '한국 건설산업 2025(Korea Construction 2025)'를 만들어보자. 여기서 새로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선언하고 실천을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자.

끝으로, '한국 건설산업 2025'를 추진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립해야 한다. 영국의 'Construction 2025'도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리더십위원회(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가 주도하고 있다. CERIK